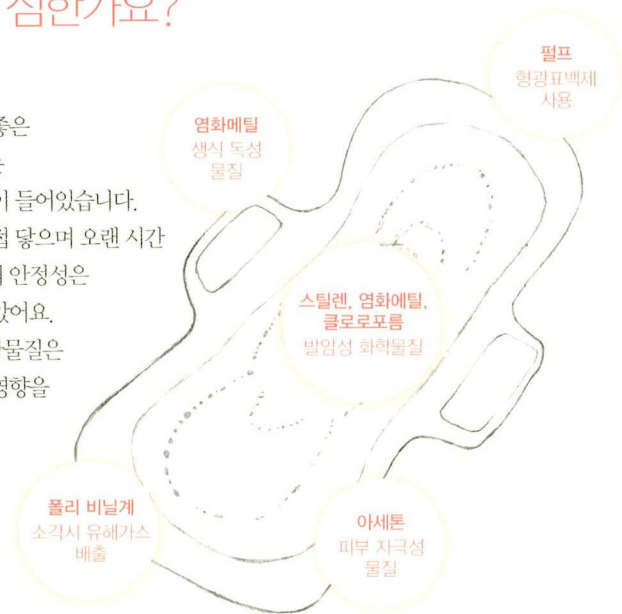


일회용 생리대 착용시 피부가 가렵거나 짓무르고 생리통이 심한가요?

얇지만 흡수력이 좋은
일회용 생리대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여성의 피부에 직접 닿으며 오랜 시간
착용하는 생리대의 안정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생리대의 유해화학물질은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미국 여성환경단체 자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 (Women's Voices For the Earth) 의 P&G 사 일회용 생리대 검출 실험 결과입니다.



‘나는 달’ 캠페인은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캠페인입니다.
여성건강교육과 다양한 월경용품 캠페인을 통해 월경문화를 보다 친환경적이고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 캄보디아, 네팔 소녀 월경교육 및 면생리대 지원
- 국내 여성건강 교육 및 면생리대 기부 캠페인
- 월경문화 온라인 캠페인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모든 생명이 평등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돌봄과 살림의
녹색사회를 만들고자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201호
T 02)722-7944 W www.ecofem.or.kr E kwen@ecofem.or.kr
facebook [ecofem](https://www.facebook.com/ecofem) twitter [eco_kwen](https://twitter.com/eco_kwen)

일회용 생리대는 광고처럼 하얗고 깨끗할까요?

모두가 함께 하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캠페인



우리 몸에만 나쁜 게 아니라, 환경도 아파요!

우리는 일회용 생리대를
쉽게 쓰고 버리지만 그 양은 엄청납니다.
한 사람이 13세부터 50세까지
약 37년동안 한 달에 5일
하루 평균 5개의 생리대를
쓴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평생
약 11,1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11,100개의 생리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여의도 만한 숲을
파괴해야 합니다.



순면으로 만든 면생리대로 우리 몸과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인 일회용 생리대는
통풍이 되지 않아 오랜시간 피부에 닿아 있으면
긁힘이 생기고, 체온으로 인한 세균 번식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순면으로 만든 면생리대는
여성의 몸에 자극이 적고
화학물질과 생리혈이 만나 생기는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10년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면생리대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우리 몸과 자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면생리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Q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A 흐르는 물에 면생리대 생리혈을 가볍게
씻어내고 세탁비누를 묻혀 미지근한 물
에 반나절 이상 담가둡니다. 생리혈이
거의 빠진 면생리대는 손세탁하거나 세
탁기에 돌려주세요.

*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혈의 단백질
성분이 응고되어 세척이 어려워요.

* 식초를 2~3방울 넣어 행구어 햇볕에
잘 말리면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어요.

* 방수기능이 있는 면생리대는 너무
오래 삶으면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면생리대 구입 후 삶은 후 사용하세요.
취발성 유기화합물이 제거됩니다.

Q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나요?

A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할 때 나는 불쾌
한 냄새는 화학물질과 생리혈이 만나
서 나는 냄새예요. 순수한 생리혈은 냄새
가 심하지 않고 면생리대는 통기성
이 좋아 냄새가 훨씬 덜 나요.

Q 면생리대 비싸지 않나요?

A 매 달 구입해야 하는 일회용생리대와
달리 면생리대는 한 번 구입하면 평균
5~10년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됩니다.

Q 외출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사용한 생리대는 파우치에 넣어 휴대
해요. 냄새가 걱정된다면 비닐봉지나
지퍼백을 활용해보세요.

